



액을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(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적어도 위 금액 이상으로 보인다). 이와 같이 산정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.

순번	원고 (호실)	전용 면적(m <sup>2</sup> )	기동 면적(m <sup>2</sup> )	공간제한 면적(m <sup>2</sup> )	공간제한 비율(%) <sup>1)</sup>	분양대금(원)	인정금액(원) (원 미만 버림)
1	A (F호)	29.84	0.54	0.7	2.34	286,472,000	6,703,444 (=286,472,000×0.0234)
2	B (G호)	29.34	0.88	1.43 <sup>2)</sup>	4.87	282,220,000	13,744,114 (=282,220,000×0.0487)
3	C (H호)	34.50	1.10 1.05	1.21 1.05	6.55	688,303,000	45,083,846 (=688,303,000×0.0655)
4	D (I호)	35.73	1.125	1.125	3.14	407,378,000	12,791,669 (=407,378,000×0.0314)

## 다. 소결

따라서 피고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6,703,444원, 원고 B에게 13,744,114원, 원고 C에게 45,083,846원, 원고 D에게 12,791,6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. 7. 28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2. 2. 10.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"

## 2. 결론

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

1) 공간제한면적÷전용면적×100,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

2) 원고 B은 기동면적(0.88m<sup>2</sup>)에 더하여 기동과 벽체 사이의 이격거리 1m 부분 전체를 공간제한면적(1.1m<sup>2</sup>)이라고 주장하나, 그 위치와 형태, 이용 가능성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이격거리 1m 부분 중 1/2을 공간제한면적(0.55m<sup>2</sup>)으로 인정한다.